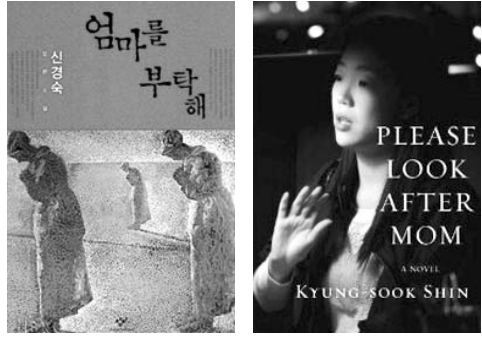


미국 올린 '엄마를 부탁해' 국내 재열풍

국내외에 부는 '엄마를 부탁해' 열풍.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Please Look After Mom)이 미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사를 다시 쓰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출간 2년이 넘었지만 다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연극에 이어 뮤지컬로도 제작돼 초연을 앞두고 있는 등 '엄마를 부탁해'가 2011년 한국문학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신경숙 소설 영문판 출간 호응... 아마존 베스트셀러 30위
국내에서도 다시 베스트셀러 1위... 연극·뮤지컬로도 제작

◇미국서 호평... 아마존 순위 진입=미국의 유명 문학출판사 크노프는 1년여에 걸쳐 공들여 준비한 끝에 지난 5일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을 출간했다. 책에 자신감을 가진 크노프는 초반 10만부를 발행하고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뉴욕타임즈는 두 차례나 소개하는 등 현지 언론과 평단도 '엄마를 부탁해'에 주목하고 있으며, 서점가에도 즉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출간 하루 만에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 순위 97위로 첫 진입한 '엄마를 부탁해'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오후 현재 아마존닷컴 전체 순위 30위, '보컬문학'(Literary) 순위 7위에 올라 있다. 독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크노프측은 3쇄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영문판 출간기념회를 시작으로 북투어를 진행중인 신씨는 향후 북미 7개 지역과 유럽 8개국을 돌며 더 많은 세계 독자와 교감할 예정이다.

그의 또 다른 장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도 영국과 폴란드 등에 판권이 판매됐으며 미국 출간도 추진 중이다. ◇광주서점가도 판매 급증=이같은 반응에 한국에서도 '엄마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170만부가 팔린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출판인회의 집계, 4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에 재진입한데 이어 8일부터는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또한 한국판 '엄마를 부탁해'는 물론 영문판까지 각각 국내도서와 외국도서 종합 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 영풍문고 박지영 주임은 "영문판 인기 소식에 신경숙의 소설을 찾는 부쩍 늘었다"며 "하루에 20권 이상 팔려나가고 있고 문의 전화도 계속되고 있어 '엄마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인기로 따라 광주지역 서점가는 물론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엄마를 부탁

해' 등 신씨의 작품에 대한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연극 '엄마를 부탁해' 광주공연='엄마를 부탁해'는 연극과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 지난해 초연돼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는 오는 23일(오후 3시·7시) 5·18기념문화관에서 광주팬들을 만난다. 연극배우 손숙과 김여진을 비롯해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소설의 감동을 그대로 전한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시 컴퍼니가 제작한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는 오는 5월 5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초연된다. 마당극은 물론이고, '벽속의 요정' 등을 통해 뮤지컬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온 김성녀가 타이틀롤을 맡고, '몬테크리스토백' 등에서 열연한 차지연이 딸로 출연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번역자 김지영 씨

"영어로 쓴 것처럼 잘 읽히도록..."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 'Please Look After Mom'이 성공을 거둔 데는 번역자 김지영(30·사천)씨의 역할이 컸다. 그는 "번역할 때 영어로 쓴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영어로 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엄마라는 보편적인 주

제와 한국적인 특수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이 책의 인기 이유를 꼽았다. 김씨는 "엄마를 부탁해"는 다른 번역 작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며 "다른 작품은 외국서적이나 유명인의 말이 과다하게 인용된 경우 원본을 찾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영하의 '빛의 제국'·'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조정래의 '해' 등을 번역했다. 이번 소설에서 미국인에게는 생소한 것을



언급한 대목은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문장 속에 녹여내도록 노력했다. 한국의 묘지가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자리잡혀 있는지 모르는 미국 독자를 위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위한 문장을 넣기도 했다. 1981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김씨는 미국 웨슬리안대에서 역사와 불문학 전공 후 샌프란시스코 해이스팅스 법학대학원을 다녔다. 출판사와 법률회사를 2년씩 다녔고 지금은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등을 역역한 번역가 유영난씨다. /연합뉴스

세비아비엔날레 참여 손봉채·이이남 등 한국작가 13명

2년 넘도록 작품 돌려 받지 못해

화랑협회·문광부 대책 마련

손봉채·이이남 등 제3회 스페인 세비아비엔날레(2008년 10월2일~2009년 1월11일)에 참여했던 한국 작가 13명이 전시 폐막 2년이 넘도록 출품작을 되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주최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스페인 운송업체가 이들 작품을 압류한 상태. 문제가 장기화되자 한국화랑협회는 소속 작가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세비아비엔날레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이원일(2004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씨가 아시아인 최초로 공동 감독을 맡았고,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이 전시장으로 사용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 작가로는 강애란·김신일·노상균·문범·손봉채·오용석·이경호·이기봉·이상남·이용덕·이이남·지용호·최선명 등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주최측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시가 끝난 뒤 작품을 각국 작가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에 필요한 운송비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은 스페인 운송업체가 보관 중이며, 이 업체는 운송·보관료로 2억여원을 요구하



손봉채 작 '바르도'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작가 손봉채씨는 이 전시에 출품했던 '바르도' '물에 핀 꽃'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 3점을, 미디어 작가 이이남씨는 '디지털 8폭병풍-크로스 오버 앙상블'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50대의 자전거로 만든 대형 설치 작품인 손씨의 '바르도'는 세비아비엔날레 기간에 호평을 받아 노르웨이현대미술관에서 순회전시를 열기로 했지만 작품이 회수되지 않아 무산됐다. 설치 작품 '물에 핀 꽃'은 스페인 한 컬렉터에게 판매됐지만 작품을 제때 전달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됐다. 손씨의 이들 작품 보험가액만 3억원이며, 시중 가격은 5~6억원에 달하며, 이씨의 작품도 현재 1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즈의 봄나들이

호신대 'Jazz In Spring' 15일 문예회관

'봄바람에 실려온 재즈 선율.' 호남신학대목교 음악학과 실용음악 정기연주회 'Jazz In Spring'이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Jazz In Spring'은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17인조 재즈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호신대 교수진은 뉴욕대, 버클리 음대 등 정통 명문대에서 공부한 이들로 구성돼 재즈 불모지인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켜 왔다. 이번 무대는 박수용(색소폰), 박종화(재즈피아노) 임민수(드럼), 김귀훈(재즈 기타), 강윤숙(재즈피아노)교수와 대중가수 보컬트레이너로 유명한 차운섭 초빙교수 등 강사진과 재학생이 함께 꾸민다. 재즈피아노 듀엣, 트리오, 콰텟, 가스펠콰이어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650-156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위험한 상견례' 촬영장

광주 '이장우 가옥' 눈길

송새벽 주연의 영화 '위험한 상견례'는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의 결혼 과정을 그린 로매틱 코미디물이다. 13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전라도 본가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촬영장소는 동신대 설립자 '이장우 박사 가옥'이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이장우 가옥은 1899년에 지어진 전통 기와집으로 1989년 광주시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된 곳이다. 건립 당시에는 안채만 있었지만 이장우 박사가 1959년 사들여 사랑채 행랑채 등을 완성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대문간과 공간채·행랑채·사랑채·안채가 'ㄱ'자로 구성돼 있고, 앞뜰과 뒤뜰에 아름드리나무와 꽃나무들이 격조 있게 가꾸어져 있으며, 담장 너머로 무등산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은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됐으며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